

자연특별시 무주, 환경운동 눈길 청정자연속야(夜)밤 무주 투어

‘환경의 날’ 기념 EM효공 던지기·환경정화 활동 등 진행

무주군은 지난 31일 무주읍 남대천 일원에서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살리기 무주군네트워크(대표 이상진)가 주최하고 무주군이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에 의한 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무주초와 중앙초, 무주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역 내 기업과 주민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은 지난 5월 31일 무주읍 남대천 일원에서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EM(Effective Micro-organisms)효공 던지기, 하천 변 풀 깎기, 하천 변 정화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화 활동은 터미널 방향과 국유림관리소 방향, 농공단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또 무주중학교 학생들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비롯한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아끼기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직접 제작해 들고 거리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사용된 EM효공(1만 개)

은 무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2주간 숙성시킨 것으로, EM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 유기물 발효 및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버려진 종이 상자를 활용해 만든 피켓을 보이며 환경보호를 의치고, 원리를 배우며 만든 EM효공을 하천에 던지면서 물이 깨끗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후변화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각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같이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했던 (주)풀무원 다나과 (유)일도씨엔엘 측에서도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전기의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환경기초 시설을 운영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혀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환경보호 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 내 터미널 등 운수 관련 종사협회와 양수발전소 등과도 협력해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외 거주민 120명 참가 태권도 공연 관람·야경 투어 등 진행

‘청정자연속 야(夜)밤 무주 투어’가 지난 1일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북관광 마케팅 종합지원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경관 명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군 연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신청받았던 전북특별자치도 외 거주자 12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 무주예천문화관에 집결해 무주반디랜드로 이동한 후 VR체험과 동영상실, 아쿠아존 등을 둘러봤으며 무주예천문화관 다목적홀에서 태권도 공연을 관람했다.

이후 8시 30분부터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남대천교 발빛다리 사랑의 다리, 한풍루 등 야경 투어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에게는 간식과 야경봉 등이 담긴 야밤 꾸러미를 비롯해 무주사랑

상품권 1만 원권이 지급됐으며 돌발퀴즈와 북북북 경품추첨 이벤트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관광객 김 모 씨(42세, 대전)는 “아이들에게 반딧불이 보여주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제가 더 신기해서 봤던 것 같다”며 “태권도 공연도 좋았고 발빛다리와 한풍루 등 야경도 아끼자기하니 너무 예뻐서 밤 소풍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했던 무주군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야(夜)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6월 애반딧불이 / 8월 말~9월 초 늦반딧불이)를 중심으로 낙화놀이와 무주읍 발빛다리, 등 야간경관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정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한글학자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제 거행

장수군은 지난 1일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38주기 추모제를 장수군 계북면 정인승 기념관에서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박희승 국회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정진현 유족대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훈식 군수의 초헌례, 박희승 국회의원의 아헌례,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다.

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계북면

양악리에서 태어나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대해 연희전문학교에서 본격적인 한글 연구를 시작, 졸업 후에는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며 ‘한글’의 발행을 주관하고 우리말 체계화를 위한 핵심 연구에 참여하는 등 우리말 연구와 보급에 일생을 바쳤다.

장수군은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종열) 주관으로 매년 추모 제례봉행을 거행해 오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무주서 개최

도내 12개 시·군 300여명 참가 개인·단체 부문서 실력 겨뤘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지난 31일 무주군 안성면 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주최하고 전북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박충기)와 무주군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박전석)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2개 시·군에서 3백여 명이 참가해 개인 및 단체 부문서 실력을 겨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께 휴식과 위로를, 소식을 전해 듣는 많은 분께는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 대회를 계기로 그라운드골프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최고의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무주 또한 다양한 생활스포츠 기반을 갖춘 스포츠 강군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6월 5일부터(~6. 9.) 무주산골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지난 31일 무주군 안성면 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영화제가, 8월 31일부터(~9. 8.)는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된다”며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라 더 특별한 축제로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동호인은 150여 명으로, 5월 28일 열린

전주시 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서 개인전 1, 2, 3, 4위와 단체전 준우승을 거두며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당도 측정기 활용 고품질 과수 생산 도와

진안군은 사과, 수박 등의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공급하고, 농가들의 당도 측정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비치하는 당도 측정기는 3종류로 △중소형과 △애플수박, 멜론류 △수박 전용 등으로 사과, 배, 복숭아, 참외, 애플망고, 사인 머스켓, 수박, 멜론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군은 당도 측정기를 활용해 작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당도를 측정해 수확 전까지 직접 현장에서 당도 높은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해당 품목의 당도 측정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별 농업인상담소에 문의하면 상담소장들이 출장을 나가



품목들의 당도를 측정해 준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력 소득작목의 수확 적기 판별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목별 재배 기술 교육과 농업인 현장 지도 및 컨설팅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고온기 시설재배 작물 피해 예방 만전

장수군이 고온기 도래에 맞춰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고온 피해 예방 사전 현장점검 및 기술 지도를 6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온이 대체로 평균보다 높고, 강수량은 6월 상순은 적고, 하순은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군은 고온건조 및 고온다습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설재배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수군의 주요 고온기 시설작물로는 토마토, 상추, 수박,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군에서는 시설재배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수확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생산지로서 몹을 북돋고 있다.

이에 군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묘종, 관수자재 등 생산기반 자체뿐만 아니라, 고온경감을 위한 기능성 차열망, 기능성 멀칭재, 환기시설, 포그 시설 등을 지원해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집중안전점검 부단체장 현장점검 실시

진안군은 지난 28일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부단체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병하 부군수는 관내 대표 물놀이 관리지역인 윤일암일일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표지판, 인명구조함, 자동제세동기 등 시설물과 구명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구에 대한 관리상태와 주변 위험한 환경에 대한 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진안소방서 및 자율방재단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 소방 분야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해 다방면으로 점검을 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도 논의했다.

김병하 부군수는 “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